

취약부분 파악 후 매일 일정량 스터디 플랜

■ SAT 시험준비

11학년과 10학년인 학생들은 10월과 11월, 12월 중에 치른 SAT 성적으로 파워풀한 내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공부해야 한다. 12월과 1월 중에 지원해야 하는 탐 서머 프로그램들에 뽑히게 되면 그만큼 탐 명문대학 지원 리스트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AT 시험 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 균형을 생각하라

한 학생이 자신의 SAT 점수가 2,250 정도가 나왔는데, 꼭 2,30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느냐고 묻는다. 점수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수도,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 가능하다면 도전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다른 스펙들이 SAT 점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부분에 힘을 더 실어야 할 것이다.

GPA와 카운슬러 평가 등이 고교시절 성취해 온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표준시험 또한 광범위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대학들은 이같은 테스트로 지원자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매년 바뀌는 정보들을 놓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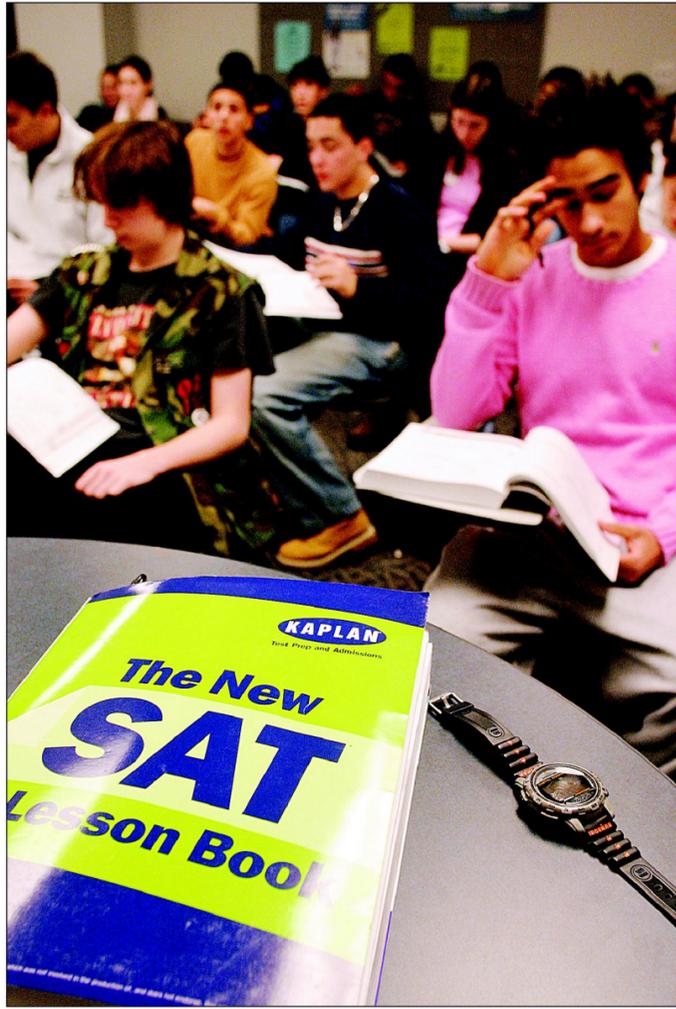
트를 준비한다. SAT를 이미 두 번 이상 치렀다면 ACT를 준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 학년을 통틀어 전국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2학년 때 치르는 ACT 성적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SAT 테스트를 볼 계획이라면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의 공부계획을 미리 세우고 싶고, 매일 매일 일정량의 스터디 플랜을 짜서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실전 테스트를 해서 자신의 취약부분이 어디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타입의 질문에 약한지 살펴본 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야 할 것이다.

무작정 SAT 학원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SAT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를 일단 분



SAT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지만, 그것이 합격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학교성과 과외 활동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 교육정보

새언약 초·중·고 신입생 모집

WASC 공식 인준을 받은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CA)에서는 내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오픈하우스를 11월 8일 오후 7시 진행한다.

우수한 강사진과 소수 정예 클래스로 알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학교는 AP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IB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 주소: 3119 W. 6th St. LA
- 전화: (213)487-5437

SAT / ACT 세미나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렉스 칼리지 프랩에서는 앞으로 입시에 도전할 예비 수험생들이 꼭 거쳐야 하는 SAT와 ACT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10월27일 어바인과 LA, 아카데미 지역에서 개최한다.

두 시험의 특징과 문제 유형, 준비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게 될 이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50달러 상당의 온라인 수업 쿠폰과 무료 시험결과 분석, 가입비 10% 할인권 등이 제공된다.

지역별 행사시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어바인: 오전 10시(2875 Michelle Dr. #140, Irvine)
- LA: 오전 10시(4055 Wilshire Blvd. #103, LA)
- 아카데미: 오후 2시(150 N. Santa Anita Ave. #300, Arcadia)

옥스포드 아카데미

명문 대학에 한인 학생들을 다수 입학시키고 있는 입시전문 학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서는 2012년도 SAT, ACT, WASC 크레딧 특별반 원생을 모집 중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정확한 실력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지도와 관리로 최고의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GPA 향상 프로그램과 주요 표준고사 준비반, 입시 카운슬링 등 다양한 강의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3727 W. 6th St. #410, LA
- 문의: (213)380-0810 어드미션 마스터스 제이 박

11학년 점수 낮을 땐 10·11월 재도전 SAT 2번 이상 치렀으면 ACT 준비 대학따라 시험성적 적용 기준 달라

지 않고 살펴야 한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대학 진학준비는 물론이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SAT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AT 성적은 입학사정관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버드를 비롯한 탐 명문대학들이 매년 수많은 만점짜리 학생들을 탈락시킨다. 높은 SAT 점수만으로는 명문대 합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원서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석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SAT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 ACT에 응시할 것을 권한다. 일부 학생들은 SAT보다 ACT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서 SAT와 ACT 둘 중 하나의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ACT 테스트에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ACT의 인지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SAT와 ACT 성적을 모두 받아들이며 둘 중 한 시험만 봤을 경우에도 점수 환산을 해주고 있어 ACT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계획 세우기

만약 11학년 2학기까지 SAT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면 12학년 첫 학기에 치러지는 10월과 11월 테스



제이 박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스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 지원 대학을 살펴라

SAT나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미국의 일부 대학들도 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두가 안다면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이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주위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GPA는 비교적 좋는데 표준고사 성적이 취약 부분이라면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기준에 동조

하지 않고 자신의 대학의 기준을 세워 유지하려는 대학들이다. SAT I 대신 SAT II를 보내도 되는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보도인(Bowdoin) 베이스(Bates) 마운트 홀요크(Mount Holyoke) 코네티컷 대학, 해밀턴(Hamilton), 유니언(Union) 대학 등이 있으며, LA 동부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피처(Pitzer)도 SAT I의 독해와 수학 점수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SAT 스코어를 어떻게 대학 입학사정에 대입하는지 알아야 한다. SAT 스코어를 오직 플레 이스먼트나 아카데미 어드바이징에 쓰는 대학도 있고, 타주 학생들에게만 제출하게 하는 대학도 있다. 만약 최소한의 GPA를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 SAT·ACT 스코어를 참작하는 대학들도 있다.

그리고 오직 일부 프로그램만 이 테스트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미들베리 대학(Middlebury College)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골라낼 수 있다. 만약 SAT I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AP 점수 세 개를 낸다가, 혹은 IB 점수 세 개 아니면 SAT II 점수 세 개를 내면 된다.

www.FairTest.org에서는 SAT나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서 이렇듯 점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 SAT II는

SAT II(Subject Test)는 대학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니 직접 학교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같은 대학들도 과마다 다르기도 하다. 대부분 엔지니어링이나 과학, 수학 과목 계통은 SAT II 수험시험이 필수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두 과목의 SAT II 시험점수를 요구하는데, 세 과목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다. 5월이나 6월에 세 과목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 이 있다면 10월이나 11월에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SAT II 과목을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SAT II는 고교에서 AP과목을 듣는 과목들을 AP준비와 함께 5월과 6월에 이어서 보는 것이 좋다. Math Level 2는 Pre-Calculus를 끝낸 학생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수학전문

수학지도 20년 경험으로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해결) 가르쳐 줍니다

Test 준비
Homework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즉시 해결
근본적으로 수학 잘하도록
수학 경시 대회

- 1:1 지도
- 1:2 지도
- 1:3 지도
- Group 지도

SAT 1 수학, SAT 2 수학
초등학교 전과정 총정리
중학교 전과정 총정리
고등학교 전과정 총정리

Since 1994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수학만은 자신있게 가르칩니다

개인지도 Group지도

교육효과

- 평범했던 학생이 수학경시대회 수상자로
- F,D,C였던 학생이 B, A로
- 평범했던 학생이 하버드, 스탠포드 합격자로
- 수학을 싫어했던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 실수를 너무 자주하고 배운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 공부습관이 나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 응용문제를 못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과정 능력이 없습니까?

TEACHING 법칙

자체 개발 교재 사용
교과서 내용위주, 칠판강의
선응용 후개념의 법칙, 3 단계 System
1시간30분씩 1주일에 2번 (또는 1번) 수업

지역 학원

LA : (213) 384-2400
Fullerton : (714) 738-5571
Cerritos / Buena Park : (213) 384-2400

Since 1994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자녀의 적성은?



Edwin Hong
커리어 전문 상담가

- UCLA 심리학, 경제학
- USC MBA
- Certified by CPP/GS Consultants
- Praised by Judith Grutter
As one of the top test interpreters (Co-author of the SII)

적성검사 & 커리어 상담전문 (적성/전공선택/진로결정/가치)

-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Talents 검사)
- 개인적인 성격은 어떤지? (Personality 검사)
- 흥미있어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Interests 검사)
-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Values Exercise)

- * 검사 + 결과 자세한 개인상담
- * 4가지 검사중 원하시는것만 받을 수도 있음
- * 개인, 단체 Free 세미나

Here Career (LA/OC 오피스 2곳)
한국어 (213)446-0374, 영어 (714)752-0310